

읽은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아주 좋은' 책

《갯벌이야기》

《갯벌이야기》를 낸 지 6개월이 돼 간다. 이 책은 우리에게 기자들이 좋아하는 책과 독자들이 좋아하는 책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 사이 일간지나 여러 잡지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줬지만 판매로 이어지지 못해 많이 안타까웠다.

사실 환경이라는 심심(?)한 주제로 책을 낸다는 것은 상업적인 목적보다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 또 좋은 책을 만들겠다는 출판사의 의지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처세와 재테크 또는 토익책 같은 실용서가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묵직하다. 이것은 그만큼 생존경쟁의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 말이다.

《갯벌이야기》는 MBC 다큐멘터리 <갯벌 그 후 10년>의 촬영현장에 저자가 함께 참여하면서 쓴 글이다. 근래에 갯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져 TV나 신문에서 많이 다룬 바 있지만, 대부분 여행지

나 아이들의 생태체험 등으로만 초점을 맞춰왔다. 때문에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게 잡고 조개 잡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곳으로만 갯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자는 그렇게 무심코 왔다가는 외지인들의 발길에 갯벌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다고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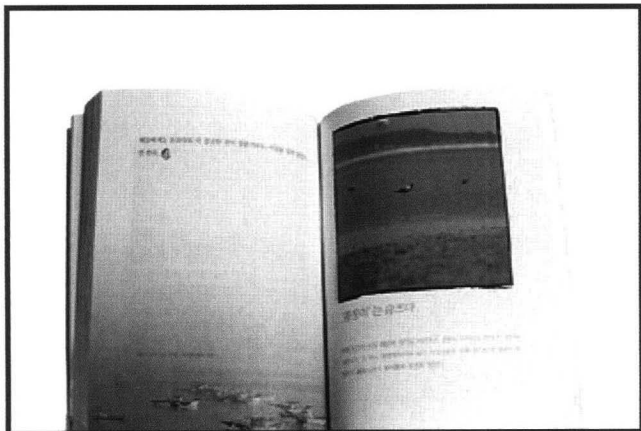
처음 MBC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갯벌 그 후 10년>을 기획하며 저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저자는 1년 이상의 장기 촬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은 갖고 촬영해야 갯벌 생물들의 삶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1년여 간 진흙밭을 누비며 갯벌의 생명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본 갯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을 보여준다. '갯벌'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진흙밭. 꿈틀거리는 게. 조개 잡는 아낙. 고작 그런 단편적인 것들이 전부였던 내게, 《갯벌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그 너른 땅에서 일어나는 미세하고도 거대한 자연의 이야기. 한평생을 갯벌과 함께 살아온 한 할머니의 표현처

럼, 갯벌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의 자궁'과도 같은 곳이다. 이 책은 갯벌이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스물다섯 개의 이야기 보따리에 담아두었다.

책이 나오고 며칠 후 MBC 다큐멘터리 <갯벌 그 후 10년>이 방영되는 것을 보았다. 몇 달 간 책 작업을 했던 것이 방송에 나온다니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2시간 짜리 방송은 200페이지를 훨씬 넘는 원고의 내용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했다. 아무리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달하고 영상매체에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다 하더라도 영상매체가 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의 상상력을 뛰어넘기란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깨놓고 말해 '재밌는' 책은 아니다. 그렇지만 읽은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아주 좋은' 책이다. 아직 초판을 다 소화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끊이지 않고 책을 찾아주는 독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줄 것이라 믿는다. **\*\*\***

신현숙 | 여성신문사 출판부



《갯벌이야기》 백용해 지음 | 여성신문사 | 240쪽 | 값 12,000원



편집자로서의 고민과 해답, 숙제를 안겨준 책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어떤 책을 고를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정이 많이 들고 지금껏 그래왔지만 앞으로 도 꾸준한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았으면 하는 책을 집어 들었다.

이 책은 나에게 '편집'이라는 작업에 대한 고민과 나름대로의 해답,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준 책이기도 하다. 저자, 출판사, 편집자가 모두 골고루 커나가는 것, 언뜻 간단해 보이고 뻥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다. 이 책을 출발점으로, 각 분야(특히 교양과학)의 숨어 있는 필자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능력 있는 필자들이 출판사의 러브콜을 기다리며 곳곳에서 작은 꿈 하나씩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 과학출판도 꽤 활기를 띠는 편이기는 하지만, 과학 글쓰기의 현실은 아직도 척박한 편이다. 물론 소수의 글 잘 쓰는 과학자들도 있으나, 이들이 다루는 소재와 역할 분담에도 한계가 있다. 이제 좀더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야기를

대중에게 들려줄 수 있는 쉽고 활기찬 과학자들이 등장할 때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 책은 한 젊은 과학도가 '비만과 유전자' '성의 선택' '환경호르몬' '광우병' '인공 생명' 등 요즘 눈길을 끄는 생물학 관련 키워드들을 쉽고 재미있게 써내려간 과학 에세이다. 대학원생으로, 연구원으로, 지구력이 필요한 실험실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면서도 생명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만해 과학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던 저자는 결국 독자들에게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를 잡게 된다.

저자의 '애칭(?)'이기도 한 '하리하라hari-hara'는 인도 신화에서 따왔다. 이는 인도 신화의 빛과 시작과 창조의 신 비슈누와 어둠과 끝과 파괴의 신 시바의 합체 형태를 의미한다. 자칫 모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어울려 완벽한 원형(原型)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게 되고 싶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저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독자들과의 눈높이를 조율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덕분에 피부에 와닿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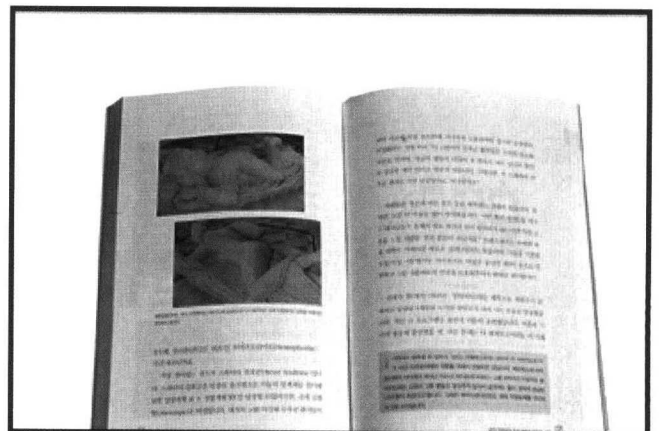
친근한 글쓰기를 잘 해내고는 있지만, 다음번 작품에서는 저자도 편집자인 나도 '과학책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좀더 깊이 있는 글쓰기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현숙 | 궁리 편집부 편집장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이은희 지음 | 궁리 | 310쪽 | 값 10,000원





### 세계 일류를 향한 몸짓, 중국의 속을 들여다본 책

## 《현대중국정부와 정책》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양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반세기 동안 냉전적 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한·중관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두 나라는 인접 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인한 문화적 동질감, 같은 동양권의 외모 등으로, 짧은 수교역사와는 달리 기존의 다른 국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교류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많은 인구나 광활한 국토를 바탕으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45퍼센트 가량을 유치하면서 생산 및 소비기로서 다국적기업의 최대 투자처라는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경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중국정부도 관료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기능조정을 하는 등 능률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면

관련 법률과 정책의 개정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정부에서 즉각 시행하는 등 모든 정부역량을 경제발전을 위해 모으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자본주의식 경제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은 우리나라에는 무서운 경쟁상대국이 될 것이며 곧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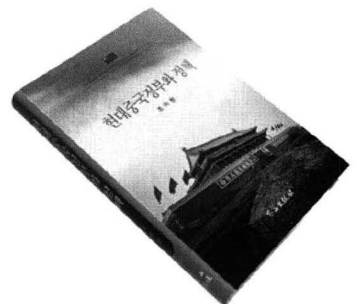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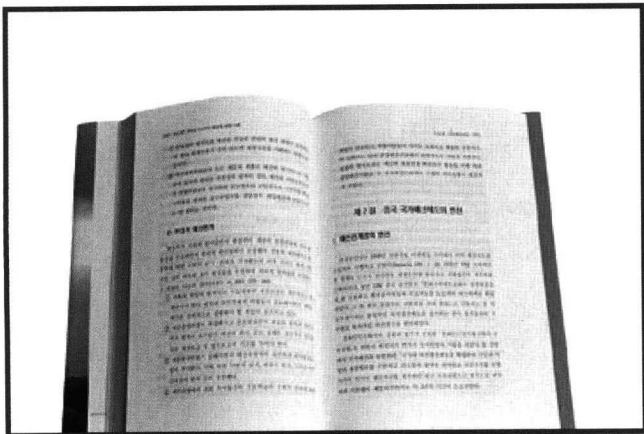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연유로 중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우리나라 학자들과 관련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정치적인 시각과 경제적인 시각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현재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혁·개방정책들도 예전에는 공산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했지만 현재는 중국의 행정부, 즉 국무원에서 집행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저자가 중국정부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위한 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1993년도에 북경과 장춘 등지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

를 바탕으로 구상하게 되었고, 2000년도에 다시 상해 복단대학에서 객좌교수로 연구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그동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베일에 싸여오다 최근에는 개방의 물결과 함께 빠르게 변화되어 세계의 최대생산국이 되었고 우리의 경쟁상대국으로 부상되었다.

이 책은 2편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현대중국정부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는데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과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기획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개혁·개방 정책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계획경제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운영하고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2편에서는 중국정부가 현재 관심을 갖고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을 선정하여 다루었다. 경제특구정책의 배경과 연혁 그리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중국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과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을 다루었다. **▶▶**

양선용 | 다산출판사 편집부



《현대중국정부와 정책》 조이현 지음 | 다산출판사 | 370쪽 | 값 18,000원